

특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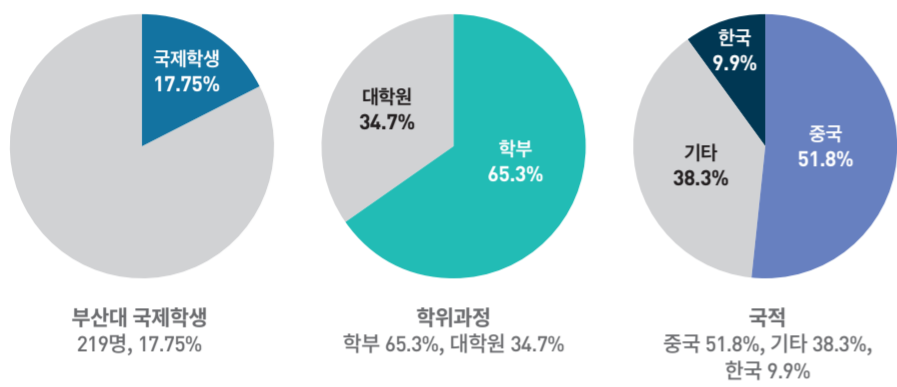
제4차 부산대 다양성 현황조사

국제학생이 경험한 부산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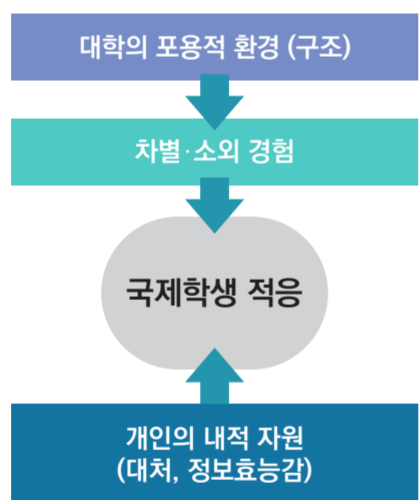
조사 개요

조사 대상



조사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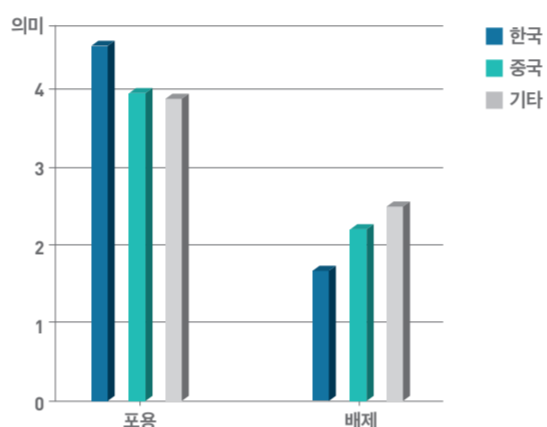
- 부산대학의 포용적 환경이라는 구조적 맥락 안에서 국제학생의 경험을 탐색
- 국제화를 유학생 '유입' 중심이 아니라, 학업·생활·관계 형성이 지속 가능한 참여 구조의 문제로 재정의
- 국제학생의 적응 문제를 개인의 특성이나 노력 차원이 아니라, 환경과 개인의 내적 자원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통합적으로 이해



주요 내용

부산대학의 포용적 환경

- 기타 국적의 국제학생에서 소외 및 배제 경험이 가장 높고, 소속감과 의사소통을 포함한 포용성을 낮게 인식
- 국제학생의 국적 기반 하위집단 세분화 및 맞춤형 지원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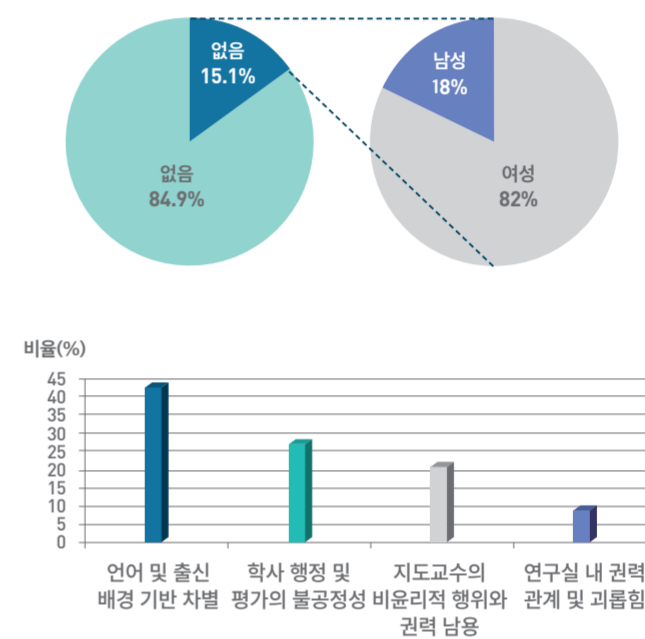


사회적 소수자 인식

- 국제학생의 3명 중 1명이 자신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, 응답자 중 인종과 국적(58%)을 차별의 주된 이유로 꼽음.
- 외국 국적이라는 신분이 대학 공동체 내에서 '주변인' 인식. 대학 내 위계가 국적에 따라 작동함

학문 환경 내 권력 기반 괴롭힘 현황

- 국제학생의 15%가 부당 대우를 경험함(여학생 82%로 압도적)
- 지도교수나 상급자(선배), 또는 학문적·제도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부터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은 학문적·위계적 권력 구조 속에서 발생, 안전한 신고망 구축과 대학 구성원의 인식 체질 개선 시급함



대처방식 및 정보접근 효능감 실태

- 대학원생 국제학생이 학부생보다 '회피대처'를 더 많이 사용함
- 한국 국적 국제학생이 외국 국적 학생보다 능동적 문제 해결 및 정보접근 효능감 우세
- 대학원 특화 지원 및 외국인 맞춤형 정보망 구축이 시급함

포용적 부산대를 위한 제안 (교직원용)

1. 문화 감수성 증진

- "한국 학생과 똑같이"라는 동일성 강요 대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준 적용

2. 심리적 낙인 방지

-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적·언어 능력 지적("외국인이냐?"), 특정 국적에 대한 일반화 발언("중국 학생은...", "동남아 학생은...")을 멈추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

3. 적극적 정보 제공

- "알아서 찾으라"는 행정적 무시 대신 국제 학생이 정보 부재로 인한 제도적 배제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, 다국어 자료 제공을 통한 행정적 격차 해소

4. 위계적 압박 근절

- 지도교수의 사적 영역 개입(연애, 종교 등), 불이익 암시("졸업 못할 수도 있다") 등 권력 남용 금지

5. 관계적 배제 방지

- 팀 프로젝트 내 소외나 피상적 관계를 넘어선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 독려

국제학생을 위한 부산대 가이드



1. 수업이 어렵고 한국어가 힘들 때 (학업 지원)

- 교수님께 물어보기: 이메일로 담당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.
- 국제처 프로그램: 유학생 전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나 튜터링을 신청하세요.
- 친구들과 함께: 학과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.



2. 학교 정보, 어디서 얻나요? (정보 접근)

- 학교 정보는 한국어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.
- 정보가 서로 다르다면? 해당 부서(국제처나 학과 사무실)에 메일을 보내거나 방문해서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.



3.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(학교 생활)

- 활동 참여: 동아리, 학과 MT, 국제처 교류 프로그램(PNU Buddy)에 참여해 보세요.
- 마음 관리: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는 효율상담원에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어요.



4. 차별이나 소외를 느꼈을 때, 교수님이나 선배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(관리 보호)

- 공식 도움: 인권센터나 효율상담원을 통해 정당한 도움을 요청하세요.
- 주변에 알리기: 믿을 수 있는 교수님, 조교님, 혹은 국제처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세요.
-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 커뮤니티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.

